

# “정성어린 손길로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늘 균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매년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며, 사랑을 전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모금행사가 영동군에서 전개됩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은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을 통해 도내 아동 및 독거노인 세대에 도시락 배달 사업과 군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값지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손길과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올해 순회 성금모금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 진행 본부

“『22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성금모금 행사” 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 일 시 : 2017년 4월 14일(금) 14:00~16:00
- ◆ 장 소 : 영동읍사무소



2016년 21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 중 1,500만원이 영동군청을 통해 저소득가정 지원사업비로 사용되어 졌습니다.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 진행 본부 (043)293-9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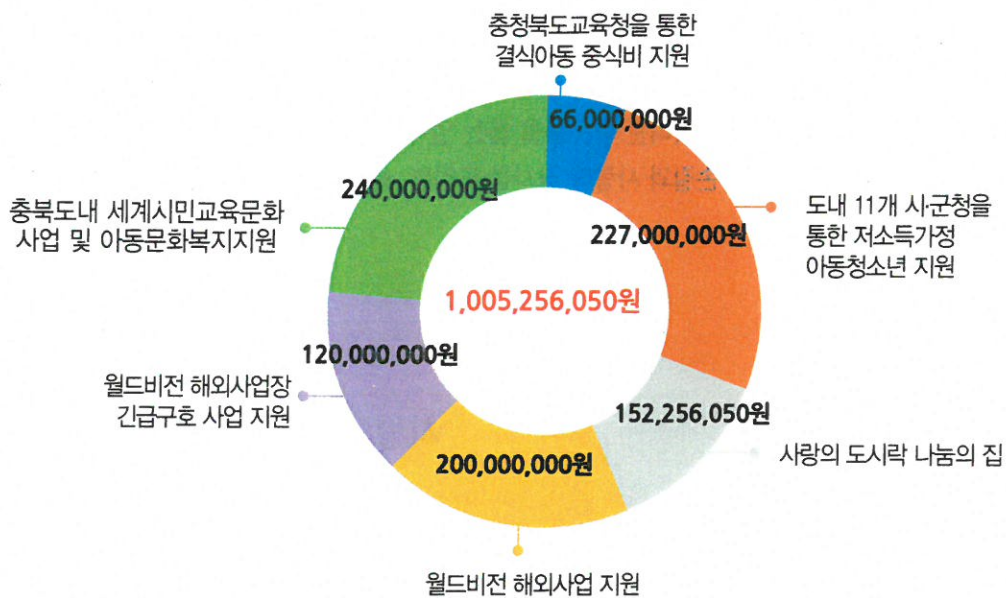
농협 301-01-4563391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 국내·외 굶주리는 이웃을 돕기 위한 22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

1996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은 유아교육기관, 학교, 기업, 단체, 교회 등을 통해 모아진 동전으로 나눔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가는 캠페인입니다. 모아진 동전은 도움이 필요한 도내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에티오피아 코리야마을 참전용사 후손들의 교육사업 지원 그리고 가난과 질병, 재해 등으로 고통 받는 국내·외 어린이들에게 충북 도민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됩니다.

## 21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 성금 사용내역



## 동양일보

# “사랑의 점심나누기”가 스물두살이 되었습니다

## 가자! Miracle! Ehtiopia!

동양일보, 청주방송, 월드비전충북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은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나눔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고, 2017년 올해 22회를 맞았다. 충북 도민의 사랑으로 1996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점심

나누기 캠페인’은 점심 한끼의 식사비를 모아 후원함으로써 충북 도내의 어려운 이웃과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해외 긴급구호사업에 큰 힘이 되었다. 충북 도민의 사랑이 모여 지난 21년간 모금된 총 후원금은 13,318,416,163 원으로 에티오피아에 엔토토암바학

교, 알브렛휘렛학교, 쉬로메다직업기술학교와 한국전 참전용사회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하여 임대사업장을 지원하였으며, 2014-5년에는 에티오피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충북도민을 대표하여 방문하여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으며 아래와 같은 기적을 이루었다.



엔토토암바학교



알브렛휘렛학교



쉬로메다직업기술학교



에티오피아대통령초청



한국전 참전용사회 지원



소득증대사업장